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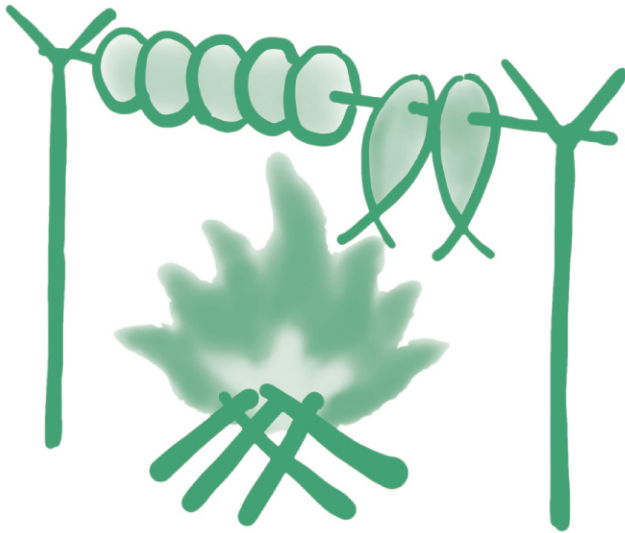
# 오버 이어

김 창 배 지음



새 빛의 소리

# 오벼 이어



김창배 지음



## | 편집자 서문 |

오래전에 시작된 1,2,3차의 혁명을 거쳐 이제 4차 혁명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인류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적응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뒤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칭하는 포모증후군(FOMO Syndrome, 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이라는 신조어가 어느덧 익숙한 단어가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일초라도 더 빠른 선택을 위해 분주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나아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통찰력을 얻지 못한 채 폭풍우 속의 배와 같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지구촌에 일어난 유례없는 사건들과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들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이들마저도 지금이 ‘말세’임을 절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밀려오는 세상의 조류 앞에서 신앙의 무장해체를 강요받고 있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피할 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

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있음을 직감합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전달하는 수 많은 미디어 채널들이 등장하였고 그 가운데 기존 기독교 교단에서 풀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계시를 푼다고 하는 채널들도 여럿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그 진위와 옥석을 가릴 기준이 없어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에 참여한 필자와 편집부 인원들도 함께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모이기 전 서로 알지 못할 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채널들 가운데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듯 백방으로 찾다가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FM채널의 주파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도 아니었고 유서 깊은 신학교의 강단도 아닌 한 무명 유튜버의 방송채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하신 통로는 김창배(John Kim, 잔 킴)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책은 새 빛의 소리 편집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을 독자들에게도 나누어주고자 하는 자원함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본서 ‘오병이어’는 김창배(John Kim, 잔 킴)님의 유튜브 채널 <지구촌 대특종> 중에서 44회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부터 60회차인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까지 총 17회분의 방송내용과 그 이후 이곳 한국의 각 지역에



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다뤄진 내용을 정리, 편집한 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책의 출판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내용을 손수 필사로 녹취하신 분들로부터 막대한 분량의 내용을 편집하고 교정하고 다듬어주신 편집부원들, 책의 도표를 만들고 표지 그림과 디자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송과 세미나를 통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 주신 김창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7. 9. 편집부

들어가며 09

떡 하나. 생명의 길 17

- 떡과 물고기 18
- 오병이어의 타임라인 20
- 사건의 배경 1. 세례 요한의 죽음 20
- 사건의 배경 2. 가나의 혼인잔치 23
- 사건의 배경 3. 왕의 신하의 아들 24
- 어부의 집 26
- 큰 무리를 보시고 27
- 저녁이 되매 29
- 한 아이가 있어 35
- 푸른 잔디 위에 37
-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40
- 먹고 다 배불렀더라 45
-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 49
-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57
- 물 위를 걸으심 60
- 칠병이어 69

떡 둘. 보리떡 다섯 개 81

- 생명의 떡 - 새 곡식 82
- 슬기로운 다섯 처녀 88
- 남자와 여자 92
- 요셉의 단 104
- 내 양과 다른 양 109
- 오병이어와 여호와의 7절기 114
- 두 가지 세례 133

**떡 셋.**

**물고기 두 마리 157**

- 어부와 물고기 158
-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166
- 산 영과 살려주는 영 170
- 여자의 부활 192
- 마르다와 마리아 213
- 두 염소 228
- 두 가지 씨앗 239

**떡 넷.**

**큰 물고기 153마리 247**

- 추가된 마지막 장 248
- 세 번째로 나타나심 250
- 일곱 제자 253
-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261
- 배 오른편에 던지라 271
- 겉옷을 두른 후 280
- 숯불 위에 놓인 떡과 물고기 283
- 큰 물고기 153마리 285
-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89
- 와서 조반을 먹으라 292

**떡 다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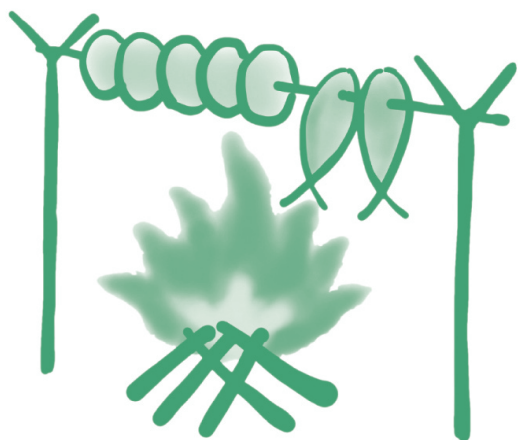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 297**

- 아브라함의 4대손 - 요셉과 열한 형제 298
- 요셉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305
- 하나님의 나라 - 왕들과 제사장들 312
- 여자와 아이 - 야곱과 에서 318
- 천년왕국과 초막절의 성물 323
- 왕국의 모형 - 너와 네집 335
- 영원한 복음 347

**나오며 357**

**부 록 365**





들어가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요한복음 6:9)

이 책을 손에 쥔 독자라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낯선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의 양손에 들려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대부분의 신학자와 교회의 목사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능력, 재물, 시간 등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배로 축복하여 돌려주신다’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교훈을 담은 매우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소위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눈에 보이는 글자와 현상만 보는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일 뿐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그 안에 감춰진 영적 비밀은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격려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의를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34-35)

‘신학’이란 말 그대로 ‘신에 대해 연구하는 인간의 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사람의 머리로 추론한 이 땅의 지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이 영의 비밀은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듯이 이 말씀 안에 담긴 영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기쁨부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9-11)

아직도 대다수의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정 버전의 성경을 내세우면서 이성을 성령 위에 두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 아이아이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존경 받던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거침 없이 외우며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정작 모세오경에서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만도 못한 이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신 후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성령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3년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 때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

씀하시고 때론 표적을 행하심으로 창세 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와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뿐 아니라 그분을 주야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주셨으나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오순절 이후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의 정신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10-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11-12)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시를 온전히 알게 되었고 성령세례를 받은 이들은 사도가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apostolos,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란 보낸 자를 대신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전달한다면 결코 죄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비유와 기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동일한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된 비밀을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풀어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알듯말듯한 비유를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성경의 계시는 물론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과 기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찌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 12:4,8-9)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이르러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리고 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오병이어에 대해 증거하는 바에 들을 귀가 있어 듣게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계시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아서 그 안에는 신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언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든 계시가 실마리 풀리듯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네 명의 저자들은 저 나름대로 기록하였기에 동일한 부분이 있고 누락되거나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 이들의 기록을 모두 보아야 오병이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아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9-12)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았더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을 열두 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면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한 제자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의 지식인 종교철학으로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해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태초의 천지에서 드러내신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입니다.

이 땅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고자 마지막 때 늦은비로 오신 성령께서 이 책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1

딱 하나.  
생명의 길



## 떡과 물고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1-14)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

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에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153마리 사건’은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153마리 사건에는 떡과 물고기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흔한 주식인 떡과 물고기여서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저런 비유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단순히 기적의 도구요 축복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2장부터 떡과 물고기는 무엇인지, 오병이어와 물고기 153마리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증거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 오병이어의 타임라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편의 영화로 구성해 본다면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결말에 이르는 플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2장과 3장에서 다루고 1장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 → 오병이어의 기적 →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 칠병이어의 기적’의 흐름을 따라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개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배경 1.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는데 이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그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가 딸을 통해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감옥에 있던 그의 목을 베어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참수됩니다. 복음서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 후에 오병이어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기다리거나 한 듯이 그의 참수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따로 빈 들에 가실 때 여러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무리를 이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  
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좇아간지라” (마태복음 14:12-13)

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순교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  
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  
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1-12)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이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한 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하였기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즉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온 자 중 가장 큰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시대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고 구속사의

새로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며 명예롭게 구속사의 흐름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과 뒤이은 오병이어 사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이후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합니다.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심으로써 복음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창세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은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새 시대의 복음의 아들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 기적을 베푸신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어 천국복음을 전하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영원한 천국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전파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원히 감추인 비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



하고 부지런히 살피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0-12)

## 사건의 배경 2. 가나의 혼인잔치

세례 요한의 죽음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며 그 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행하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돌항아리 여섯은 제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흠으로 지은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율법 아래 종인 줄 알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돌항아리에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 종의 형체를 벗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의미합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하인들이 떠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가다 줍니다. 이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자들이 공중에서 열리는 왕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시사하며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을 증거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로 상징됩니다. 이들은 하늘로서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부활 휴거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빛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 사건의 배경 3. 왕의 신하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신하의 아들 역시 종입니다. 치유받은 대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가 병들었다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통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병듦과 가난함, 포로됨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종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종들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량(해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18)

이렇게 주님은 먼저 아들과 종의 추수를 예표하는 표적을 가나안에서 행하신 후에 율법시대의 종료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과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와 7절기를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7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함께 정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로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는 열매들을 절기에 따라 구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시간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여호와와 7절기와 각종 제사와 희생에 담긴 구속사의 의미는 추후 다른 책을 통해 자세히 증거할 것입니다.

## 어부의 집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바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된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온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돌아올 것을 예표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지만 바다(Sea of Galilee)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14)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아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사마리아 못지않게 멸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제자들 또한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이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을 구체적으로 ‘벳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벳새다는 이방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는 고향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며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물고기로 상징되는 사람을 제자들이 어부가 되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어부의 집, 곧 벳새다 출신의 어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함께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연출입니다.

##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34)

예수께 나온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고 증거합니다. 즉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를 잃어버린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7족속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첫 언약을 폐하셨고 이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실 목자인데, 그들은 지금 이 목자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 나온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큰 무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지역이라고 말한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가나안 땅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열방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주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갈릴리 지역의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언급한 것은 시간상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기 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축사하신다는 것은 새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계시하는데, 이 새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복음이 나오기 직전에 푸른 잔디에 앉게 한 자들은 아직 새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 저녁이 되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중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고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펼쳐집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15-21)

마태복음의 ‘저녁이 되매’라는 서술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때



가 저물어가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날이 저물어가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는 시점이 하루 기준으로는 어두워져 가는 저녁 때이며 절기상으로는 유월절 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녁이 되매’라는 시점을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계수하는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니라” (창세기 1:3-5)

창세기 1장 4절부터 그 이후 절들에 기록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사의 시간의 전개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이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밤과 낮의 순서가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밤이 깊은 후 아침이 다가오듯, 죄와 사망, 어둠을 상징하는 율법시대가 먼저 오고, 뒤이어 복음의 광명이 비취며 새벽을 알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6)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됩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며 낮을 주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16-17)

복음이 오기 전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흑암이 깊은 때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광명한 새벽별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4-5)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과 예수께서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낮이었습시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다시 밤이 되어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릴 때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영생하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때의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죄악이 관영한 때임을 시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에 매여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율법의 정죄로 모든 자가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심령에 생수가 되어 택한 자들을 소성케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마태복음 14:15)

위의 마태복음 본문은 날이 저물고 해는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래서 구원을 갈구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복음시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이들 역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회개와 금식을 반복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날이 어두워 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언약의 성취를 시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못별과 같이 번성할 것과 그들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시기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백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아브라함의 4대손들이 돌아와 그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시간이 어둠이 내리는 저녁 때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언약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의 성취를 나타내며 마지막 추수 때를 제시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음을 알려줍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4-5)

유월절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광야로 탈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속사 성취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절기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7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 전날 밤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떡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요,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사의 첫 단추를 채우셨습니다.